

중소·중견 해외진출에 1조원 수출금융 지원

- 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 ... 수출금융 협업모델 선도
- 수출테크기업 100개 육성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제작자금 투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장영진 사장)는 6.17일(월)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25일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 기업을 발굴하여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양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Future's Lab*)에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무보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제공, 코트라 해외무역관 입주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한금융그룹이 운영중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23년말 기준 401개사 발굴 및 866억원 투자)

안덕근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을 위한 선도적인 금융협업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 심화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임을 언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고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하여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수출입과	담당자	사무관	윤인식 (044-203-4049)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2-2100-2865)

추진배경

- 유망 중소기업 수출성장과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과 무보의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연계
- 무보는 신한은행과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과 맞춤형 수출지원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일시 · 장소 : 6.17(월) 10:05~10:20,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참석 :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신한은행장, 무보 사장

주요내용

-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 무역금융 지원
-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무역보험 지원* 및 신한은행·무보 간 지원 프로그램 연계
 - * 보증·보험료 최대 90% 할인,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지원
- 해외바이어 정보 교류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세부 시간계획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0:05~10:08	3'	▶ 개회 (입장,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설명)	사회자
10:08~10:13	5'	▶ 격려말씀 (산업부 → 금융위)	장관님·금융위원장
10:13~10:17	4'	▶ 협약서 서명 (신한은행-무보)	장관님·금융위원장 임석
10:17~10:20	3'	▶ 기념 촬영	